

광주 모 농협 감사 직위 박탈 ‘내홍 극심’

이사회 당일 탈퇴자 명단 포함
소명 등 적절한 절차 없이 강행
조합 측 “자격 요건 충족 못해”

광주의 한 농업협동조합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와 관련해 논란<본보 2월 2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조합 소속 감사 직위 박탈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사회의 ‘조합원 탈퇴 안전’ 의결 과정에서도 각축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25일 광주 A 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A 농협은 최근 이사회에 ‘조합원 신규 가입 및 조합원 탈퇴’ 안전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1,700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A 농협은 지난달 28일 탈퇴 예정 조합원 73

명의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했고, 해당 조합원들에게 탈퇴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합 측은 이사회가 열린 지난 22일 탈퇴 예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심사 등을 거쳐 17명을 회생시켰고, 나머지 56명은 탈퇴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 소속 B 감사를 탈퇴 명단에 포함, 최종적으로 탈퇴 대상자는 57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B 감사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로 처리한 것은 관련 지침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B 감사는 조합원이기 이전 감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정관에 따라 제명하라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사회에 명단을 제출하기에 앞서 B 감사는 탈퇴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명의 경우 절차상 까다롭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조합원 탈퇴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B 감사는 “갑자기 탈퇴 예정자 명단에 이름

이 올라와 당황했다”며 “일반 조합원도 아니고 감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탈퇴로 처분한 것은 불합리하고, 정관에 보면 1주일 전에 탈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조합 측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한의 한 이사가 다른 이사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최근 국민신문고에 조합원 자격 요건이 없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정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C 조합원도 “지난 1월 16명 감사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출서류 심사서 B 감사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최근 A 농협 50주년 행사비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해 조합 측에서 B 감사를 탈퇴시키고자 고의적·계획적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만 실시해오다가 B 감사가 상시감사를 한다고 하니 조합 측에서 꺼리려왔을 것이

다”며 “B 감사는 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관련 고발장을 낸 150여명 조합원의 대표이고, 현 조합장을 상대로 정관 위배에 따른 사외이사 선거무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B 감사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퇴를 시켰다는 입장이다.

A 농협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조합원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라 등록돼 있다 할지라도 불법 행위라면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는 B 감사 탈퇴로 결원된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 오는 27일 보궐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 농협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주 중으로 법원에 ‘조합원 탈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44주년 5·18행사 먹구름
지역사회 불협화음 ‘여전’
오월정신지키기대책위 간담회

광주 시민단체들이 불법비리 의혹에 휩싸인 5·18 두 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에 대한 질타와 함께 올해 활동 종료로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 199개 시민단체와 개인 51명으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범시민대책위는 이날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공법 2단체의 2·19대국민공동선언 폐기와 단체 사과 등 대책위의 기본 방침은 불변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제44주년 5·18 기념행사 주관 기관과 5·18 조사 종료로 앞둔 조사위 성과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불법비리·이전투구의 모습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두 공법단체가 내년 행사를 주도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현재 시스템과 방식대로 행사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사가 단순하게 추모제와 부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와 광주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행사가 정착됐는데 이 과정을 공법단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5·18 공법 2단체가 ‘행사위에서 5·18과 관련 없는 전국 노동자회를 개최했다’는 주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기념행사는 그 시대에 제기되는 굵직한 현안과 아픔 등에 연대하고 공동투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행사를 향해 지적되는 비판에 대해 사업 진단과 조직 평가 등 쇄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18 조사위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역민 기대에 반하는 초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조사위가 올해 12월 26일 활동 종료로 앞두고 ‘상반기 5·18 조사활동보고서’를 발표했지만, 21개의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 해결된 과제는 없다”며 “또 138건의 신청사건 중 4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75건을 조사 중이며 59건이 검토 상태인데,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전 토론회에서 2·19대국민공동선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끝나 아쉬움이 남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우선적으로 두 공법단체가 토론회에 참여할 방안을 찾고 있고, 토론회 방식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월정신지키기범시민대책위는 5·18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달 제3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공법단체 참여가 불확실해 토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찬기 기자

9월 모평 킬러문항
“수학서 7개 출제”
사격세 “교육과정 범위 벗어나”
교육부 “초고난도 문항 없었다”

교육부의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격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출제된 46개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7개의 문항(15.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격세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같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공교육만으로



교육 현장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가 25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성 민원인으로 부티 교육 현장 보호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비할 수 없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와 관련해 “9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토지매매 (분양)

① 전원주택 토지

장성담 부근 (산책로)
토목공사 완료
즉시 건축 가능
평수 (100평, 150평, 200평)



▶ 매매가 2억

② 담양토지 (전원토지) 400평 → 2억

③ 장성읍 용강리(토지760평)-8천5백

상가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 유흥가능 (룸,노래홀,홀덤편)
- ▶ 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

★ 전용 100평 ★ (분양160평)
(보3천,월수익 350만)

▶ 시세 → 13억

▶ 급매 → 7억 (용 4억)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린시설) ▶ 감정가 9억4천 → 최저가 6억6천
	동 구 지산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2억7천
	북 구 일곡동 (상가주택) ▶ 감정가 7억9천 → 최저가 5억5천
	동 구 동명동 (상가주택) ▶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4천
	북 구 양산동 (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동 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정가 31억 → 최저가 14억
전남	무안군 운남면 (숙박시설) ▶ 감정가 15억 → 최저가 5억7천
	구례군 마산면 (숙박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6억9천만

010-6670-9800

062-382-5500